

文 “경제, 총체적으로 성공으로 나아가”

중소기업인 대회 축하…“경제성과 당장 체감 안 될수도”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귀 기울여…中企성장 정부 목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의 경제 정책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러나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기업벤처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중소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안착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라며 “통계와 현장의 온도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해 30~50 클럽, 즉 인구가 5천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이룬 세계 7번째 나라가 됐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 중 유일할 뿐 아니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도 매일매일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답은 현장에 있다”고 믿는다”라며 “우리 정부 첫째,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2년 차에 혁신적 포용국가의 시동을 걸었다. 3년 차인 올해에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도 내놔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중소기업은 예측할 수 없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제가 만난 중소기업인들은 결코 기업가의 사명을 잃지 않았다”며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눠야 한다. 기업이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최저임금,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무제 등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여건을 개선하는 일도 중

요하다”며 “공공이 수요 창출의 마중물이 되도록 조달제계를 개편하고,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유통센터를 이용해 홈쇼핑, 온라인몰, 백화점, 대형마트 등 우수제품이 다양한 경로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중소기업의 무대는 아주 넓다. 지난해 우리는 최초로 수출 6천억 달러를 돌파했는데, 중소기업 수출이 2년 연속 1천억 달러를 넘으며 사상 최대를 기록해 큰 몫을 했다”며 “벤처창업과 투자역도 사상 최대를 기록해 제2 벤처 붐을 기대하고 있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법률, 특허, 회계, 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기업과의 동반·상생 진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돕겠다”고 말했다. /연철뉴스

송갑석 “5·18실종자 진상조사위 출범 시급”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학살 후 가매장한 시신에 대해 보안사가 지문을 채취하고 기록을 남겼다는 첫 증언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14일 “5·18 실종자에 대한 지문기록과 시신 수장과 관련한 첫 증언이 나온 만큼 진상조사위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용장(당시 미 정보요원)씨와 허장환(당시 505 보안부대 특명부장)씨가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였다’는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북한의 간첩이 있는지 엄중히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아 지문감식관들과 함께 가매장한 시신들의 지문을 전부 채취해 기록으로 남겼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언 중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실종자 중 일부가 암매장이나 화장 뿐만 아니라 수장했다는 증언이었다.

송 의원은 “시신의 지문기록 및 수장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39년간 밝혀지지 못했던 사망자나 실종자, 행방불명자 등 희생자들의 비밀을 풀 중요한 열쇠나 마찬가지”라며 “지금 광주시민들은 39년 전 진실을 은폐하려 희생자를 마구잡이로 화장하고 수장했던 전두환 신군부와 그날의 진실을 규명할 조사위원회 출범을 방해하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다른지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진수기자

전경선 “투명한 대기환경측정시스템 구축을”

전경선 (더불어민주당, 목포5)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전 의원은 건의안에서 “최근 여수국가산업단지 235개 사업장에서 수년간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해 온 사실이 환경부 조사에서 드러나 지역사회와 도민들이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의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선정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 ‘셀프 측정’이 이러한 사태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대기오염물질의 측정량 불법조작으로 인한 처벌은 배출사업



장이 조업정지 또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건의안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방법 개선과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환경부는 감사원의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감사 결과와 여수국가산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과 실시간 감시망 구축 등을 포함한 종합개선방안을 5월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임재만기자

임종석 “황교안, 망언 문제 분명히 말하고 5·18기념식 찾아야”

문재인 청와대 1기 참모진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광주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망언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나서 5·18 3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운영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과 함께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행방불명자 묘역에 서서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실장은 “황 대표가 5·18 기념식에 오시기로 한 결정은 잘 하신 일”이라면서도 “망언 문제를 국회 절차상 해결 못 한다면 당 대표로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오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 상황을 두고는 “국민은 미래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한국당과 황 대표의 과거를 더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광주정신을 훼손하고 촛불 민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등 공안 풍지 댄나 있을 법한 인식을 스스로 없애야 드러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더 절박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권 전 관장의 페이스북을 통해 짧막하게 알린 이날 5·18묘지 참배에는 송갑석(광주 서갑) 국회의원,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이용빈 광주 광산갑 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소속 지역 인사가 동행했다.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나흘 앞둔 14일 오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운영한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이 국립 5·18민주묘지 박관현 열사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참배단에서 분향, 헌화를 마친 임 전 실장 등은 5·18 당시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와 ‘전남대 총학생회장’ 박관현 열사 묘소를 돌아보기도 했다.

5·18묘지 참배를 마치고 나서는 ‘5·18 구묘역’으로 불리는 망월동 민주진족 열사묘역까지 약 700m를 걸어서 이동했다. 민주진족 열사묘역에서 이한열·김준배 열사 묘소를 잇달아 둘러

본 임 전 실장은 “5·18묘지에서는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곳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이 잠든 곳이라 아프다”고 말했다.

5·18 39주기를 나흘 앞두고 광주를 따로 방문한 이유로는 “자분하게 추모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윤 전 수석은 5·18 구묘역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조용하게 참배하

려고 알음알음 연락해 단출하게 왔다”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18일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진성준 전 정무기획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송인배 전 정부비서관, 김금옥 전 시민사회비서관 등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다. /김대기기자

국가균형발전위, 올 지역혁신가 발굴·선정

오늘부터 6월18일까지 신청 접수

나선다.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019년도 지역혁신가’를 발굴·선정한다.

균형위는 지난해 처음으로 사람 중심의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해 창의적 생각과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지역혁신가 58명을 최종 선정·시상한바 있다.

균형위는 금년에도 ▲문화·관광 ▲마을·환경 ▲산업·기술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혁신가를 선정하고, 지역혁신 사례의 본격적인 확산을 위해

지역혁신가로 선정되면 지역혁신가 시상과 함께, 지역혁신가의 주요 혁신활동에 대해 사례집 발간, 홍보영상 제작,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보공유와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론회, 워크숍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혁신가에 대한 자세한 선정 계획과 신청 양식은 균형위 홈페이지(www.balan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균형위 관계자는 “지역혁신가 선정과 지원을 통해 혁신 활동이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최고의 차량과 최상의 서비스

28석 무등, 45인승 80여대 보유

〈관광, 예식, 회사 워크숍, 기업체 통근 차량, 예약상담 문의〉

에항고속관광
YEHYANG TOUR

(유)에항고속관광 (전세버스, 여행사)
홈페이지 : www.yh-bus.com
전화 : 062-944-5775 팩스 : 062-944-5995

기업 채용예정자 모집

<http://www.honam.or.kr>

현재 모집 과정

매일훈련수당 4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및 훈련사업에 따라 차등지급)
※ 훈련과정은 규정에 의해 과정명과 개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전 기 공 사

(5/7 개강)
[교육내용]
- 동력제어반공사, 동력설비공사
- 배관공사, 전열공사, 조명공사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취득 자격증]
- 전기기능사, 송강기능사
- 전기산업기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직업상담사

(과정평가형) (5/16 개강)
- 어려운 필기, 실기 시험 없이 훈련과정 수료 후 자체 평가를 통해 자격 취득
- 직업상담사 실무능력까지 훈련가능
*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취업성공패키지기관 전문상담사
- 고등학교, 대학교 진로 상담 및 취업지원관
- 전국 281개 시, 군, 구 소재 공공 직업안정기관
- 2,100개의 민간 유료 직업소개소
- 24개의 국외 유료 직업소개소 등

태양광발전설비

(5/20 개강)
[교육내용]
- 시스템운영 및 유지, 안전관리
- 발전장치 전기시설 및 토목공사
- 태양광발전연계장치, 전기CAD
[취득 자격증]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
-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냉 동 공 조

[교육내용]
- 냉동공학, 공기조화, 냉동기계
- 자동제어설비, 냉동설치시공
- 가스용접, 보일러취급, 보일러시공
[취득 자격증]
- 냉동공조기계기능사
- 가스기능사
- 에너지기능사 (6/3 개강)

자동차(전기전자)정비

[교육내용]
- 엔진점화장치정비유지보수
- 하이브리드전기장치정비
- LPG/LPI전자제어장치정비
[취득 자격증]
- 자동차정비기능사 (6/3 개강)
- 자동차 차체수리 기능사
- 건설기계정비 기능사

광주공동훈련센터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상담문의 605-8000